

노동부 보령지청, 충청남도과 함께 소규모 '음식점' 대상 노무관리 순회 교육 실시

✎ 이승호 기자 | ⓒ 승인 2026.06.24 19:05

사업주 대상 기초노동질서 점검 및 노무관리 집단 컨설팅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충청남도과와 협업하여 7월부터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사업장 집단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올해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이 일부 위임되는 것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충청남도과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음식점, 이·미용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보령지청 관내는 7월 13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보령지청 관내 순회 교육 일정 >

지자체	교육일자	인원	업종	교육장소
보령시	7월 13일 (월)	90명	음식점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
부여군	10월 8일 (목)	60명	음식점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대강당 3층
서천군	10월 15일 (목)	50명	음식점	서천문예의전당 소강당
청양군	10월 22일 (목)	40명	음식점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
홍성군	11월 5일 (목)	80명	음식점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 컨설팅 참여 신청 및 문의: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노동정책팀(☎ 041-635-3413)

김주홍 지청장은 “소규모 음식점 등 노무관리 취약 업종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컨설팅 및 기초노동 질서 점검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에 밀착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ceobgnews@naver.com

노동부 보령지청, 충청남도과 함께 소규모 '음식점' 대상 노무관리 순회 교육 실시

✎ 이성필 기자 | ⓒ 승인 2026.06.24 15:50

사업주 대상 기초노동질서 점검 및 노무관리 집단 컨설팅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충청남도과와 협업하여 7월부터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사업장 집단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보령지청 관내 순회 교육 일정 >

지자체	교육일자	인원	업종	교육장소
보령시	7월 13일 (월)	90명	음식점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
부여군	10월 8일 (목)	60명	음식점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대강당 3층
서천군	10월 15일 (목)	50명	음식점	서천문예의전당 소강당
청양군	10월 22일 (목)	40명	음식점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
홍성군	11월 5일 (목)	80명	음식점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 컨설팅 참여 신청 및 문의: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노동정책팀(☎ 041-635-3413)

이번 계획은 올해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정부에 노동 감독 권한이 일부 위임되는 것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충청남도와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음식점, 이·미용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보령지청 관내는 7월 13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홍 지청장은 “소규모 음식점 등 노무관리 취약 업종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컨설팅 및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에 밀착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필 기자 sip6318@hanmail.net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충남도, 소규모 음식점 노무관리 지원 나선다

기사입력시간 : 2026/06/24 [19:49:00]

김수환 기자



(보령=뉴스충청인) 김수환 기자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충청남도가 소규모 음식점과 이·미용업 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노동 컨설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충청남도과 협업체 오는 7월부터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사업장 집단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정부에 일부 노동감독 권한이 위임되는 것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

련됐다.

충청남도과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음식점과 이·미용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령지청 관할 지역은 오는 7월 13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사업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상담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김주홍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장은 “소규모 음식점 등 노무관리 취약 업종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컨설팅과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에 밀착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지청, 소규모 음식점 노동질서 컨설팅 실시

✎ 이재인 기자 | ⓒ 승인 2026.06.24 20:47

- 충남도와 협업해 7월부터 순회 교육...지방정부 협업 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충남도와 협력해 오는 7월부터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집단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이 일부 위임되기 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충남도와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음식점 및 이·미용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령지청 관내에서는 7월 13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보령시에서는 7월 13일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음식점 업주 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열린다.

이어 부여군은 10월 8일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60명, 서천군은 10월 15일 문예의전당 소강당에서 50명, 청양군은 10월 22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 40명, 홍성군은 11월 5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컨설팅 참여 신청 및 문의는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노동정책팀(041-635-3413)에서 가능하다.

김주홍 보령지청장은 “소규모 음식점 등 노무관리 취약 업종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기초노동 질서 점검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밀착형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민 기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충청남도과 함께 소규모 '음식점' 대상 노무관리 순회 교육 실시

사업주 대상 기초노동질서 점검 및 노무관리 집단 컨설팅

기사입력시간 : 2026/06/24 [13:33:00]

대전신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충청남도과 협업체 7월부터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사업장 집단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올해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이 일부 위임되는 것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보령지청 관내 순회 교육 일정

지자체	교육일자	인원	업종	교육장소
보령시	7월 13일 (월)	90명	음식점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
부여군	10월 8일 (목)	60명	음식점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대강당 3층
서천군	10월 15일 (목)	50명	음식점	서천문예의전당 소강당
청양군	10월 22일 (목)	40명	음식점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
홍성군	11월 5일 (목)	80명	음식점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 컨설팅 참여 신청 및 문의: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노동정책팀(☎ 041-635-3413)

충청남도과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음식점, 이·미용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보령지청 관내는 7월 13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홍 지청장은 “소규모 음식점 등 노무관리 취약 업종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컨설팅 및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에 밀착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동부 보령지청, 충청남도와 함께 소규모 '음식점' 대상 노무관리 순회 교육 실시

☞ 양창용 | 🕒 승인 2026.06.24 19:43 | 💬 댓글 0

- 사업주 대상 기초노동질서 점검 및 노무관리 집단 컨설팅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김주홍)은 충청남도와 협업하여 7월부터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사업주 집단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올해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이 일부 위임되는 것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충청남도과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음식점, 이·미용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보령지청 관내는 7월 13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컨설팅 참여 신청 및 문의: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노동정책팀(☎ 041-635-3413)

김주홍 지청장은 “소규모 음식점 등 노무관리 취약 업종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 컨설팅 및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에 밀착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령시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창용
다른기사 보기

"사장님, 이제 노동법도 필수입니다"...보령 음식점·미용실 찾아가는 '노무 과외' 시작

- 사업주 대상 기초노동질서 점검 및 노무관리 집단 컨설팅 -

2026.06.24 16:39 입력



< 보령지청 관내 순회 교육 일정 >

지자체	교육일자	인원	업종	교육장소
보령시	7월 13일 (월)	90명	음식점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
부여군	10월 8월 (목)	60명	음식점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대강당 3층
서천군	10월 15일 (목)	50명	음식점	서천문예의전당 소강당
청양군	10월 22일 (목)	40명	음식점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
홍성군	11월 5일 (목)	80명	음식점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보령지청 관내 순회 교육일정 캡처./보령지청

소규모 음식점과 미용실 사장님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충청남도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간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오는 7월부터 충청남도와 함께 30인 미만 음식점과 이·미용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집단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고 현장 중심의 노동행정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쉽게 말해 "나중에 단속받기 전에 미리 배우고 준비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영세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휴게시간 부여, 연차휴가 관리, 임금 지급까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적지 않았다. 작은 실수가 임금체불이나 노동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적과 처벌보다 예방에 무게를 두고 '찾아가는 노무 과외'를 시작하기로 했다.

교육은 7월부터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보령에서는 오는 7월 13일 가장 먼저 문을 연다.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임금체불 예방, 휴게시간 운영, 연차휴가 부여, 4대 보험 가입 등 사업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기초 상식을 쉽고 실용적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김주홍 지청장은 "노무관리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 신청과 문의는 충청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노동정책팀(041-635-3413)으로 하면 된다.

'장사만 잘하면 된다'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노동법도 챙기는 사장님'이 오래 살아남는 시대가 되고 있다.